

콧노래만으로 노래 검색 가능해진다

국산기술로 흥얼거리기만 해도 원하는 곡을 찾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음반 매장, 음악사이트, 노래방, 회식자리 등에서 노래제목이나 가수이름을 몰라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솔루션업체인 ㈜모두스타(대표 하선태/www.modestar.com)는 휴대폰 등의 기반을 이용해 흥얼거리기만 해도 노래 검색이 가능한 험덱스(HumDEX·허밍에 의한 노래검색) 시스템을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했다고 지난 10월 12일 밝혔다.

이 기술이 적용된 휴대폰, 노래방 기기에서는 곡이나 가수명을 몰라도 두 소절 정도(약 3초) 음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 원하는 곡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업체는 지난 2001년 관련 특허를 출원한 이 기술이 현재 광고되고 있는 KTF의 '서치 뮤직' 보다 검색률, 음성 인식 등에서 월등하다고 전했다.

하선태 대표는 '기존에는 원하는 노래를 찾기 위해 제목이나 가사를 입력하거나 미로를 찾는 것처럼 책자(리스트) 등을 뒤적여야 했다'며 '일부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악검색서비스는 외국기술이며 사람의 육성이 아닌 발매된 음악만을 들려줘야 검색이 되는 문제가 있는 데에 반해 이번에 개발한 험덱스 시스템은 사람의 흥얼거리는 멜로디 육성만으로도 음악을 검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 한글로 전화하세요'

고갑천 호남대학교 교수(플라워이벤트학파·46)가 한글전화번호 보급에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휴대폰 문자입력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화제다.

고 교수는 각종 숫자를 한글 초성자음에 하나씩 호환하는 문자입력 방법인 '한글이'를 개발했다. 또 휴대폰에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고 전화를 걸때 초성을 눌러 접속할 수 있는 한글초성단축 다이얼링 체계인 '초성이'도 개발해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개발한 입력 시스템은 가령 '378~74XX'을 입력하면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글귀가 생성되며 나중에 전화를 걸 때 글귀의 초성자음인 'ㄷㅏㅇㅏㄱㅇㅇ'을 차례대로 누르기만 하면 된다. 문자전화번호를 가지고 싶은 회사나 개인은 각 글자의 초성과 대응하는 번호를 통신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이 기술은 고려대언어공학연구실 평가 결과 현재의 휴대폰 문자입력 체계보다 타건수(한글자당 입력회수)가 10~30% 적고 손의 움직이는 거리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교수는 '초성이와 한글이를 활용하면 숫자 암기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업체에는 특허권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 올림픽' 한국서 열렸다

저작권에 관한 모든 것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제44차 세계 총회가 지난 10월 18일부터 닷새 동안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과 아셈홀에서 개최되었다.

댄 쉬런 리얼네트워크 부사장과 랄프 피어 국제음악출판사연맹 회장, 음악인식기술 라이선스 업체인 그레이스노트의 타이 로버츠 최고기술임원 등 국제인들이 대거 참석한 이 행사는 1백9개국 2백8개 단체, 각 분야 2백만명 이상의 저작자를 대표하는 비정부간 국제연맹인 CISAC가 주최했다. 저작권 관리뿐 아니라 지적재산의 이용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이 모임의 주목적.

1백여 개국 1천여 명이 참석하는 CISAC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코엑스 오디토리움과 아셈홀에서 개최된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제44차 세계 총회.

세계 총회는 '저작권 올림픽'으로도 불리고 2년마다 개최되는 CISAC 세계 총회가 아시아에서 열린 것은 20년 전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등록된 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대만, 포르투갈 등과 유치 경쟁 끝에 이번 총회를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 환경이 낙후된 아시아의 저작권 문제가 세계적 관심사인 데다 한국이 온라인 저작권이 이슈가 되고 있는 IT 강국이

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회의 중심 주제 역시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인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로 18일과 19일 이틀동안 '창작자를 위한 집중권리 관리:절실한 시기, 창작자, 대중 및 대중정책' 등 10개 섹션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이 벌어졌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국제적으로는 불법 복제의 천국이라는 한국의 오명을 씻고 저작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8일에는 작곡가 김동진, 시인 김지하, 작사가 반야월, 영화감독 임권택과 출라본 마히돌 공주(태국), 크리스티안 브론(독일), 이사오 도미타(일본), 자오위우키(중국)가 뛰어난 창작자에게 주는 CISAC 골드 메달을 수상하였다.

버려진 흙과 나무가 벽돌·삼푸로 재탄생

㈜엔바이타는 1990년대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편백 정유의 추출 기술을 최근 상용화했다. 전라남도 화순의 편백나무 군림지에서 원료를 공급받는 엔바이타는 지난달 초 LG이슈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 제품의 판매에 나섰다. 이달에는 일본에 스프레이, 비누, 화장지 등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 회사의 대표상품은 피톤치드 스프레이다. 이 제품은 실내에 뿌리면 삼림욕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장재원 사장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주부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이 이 제품을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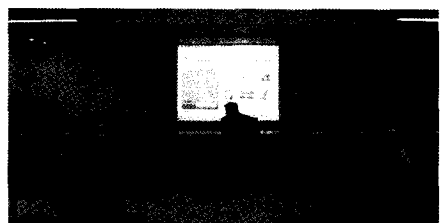
엔바이타는 최근 천연 피톤치드를 미세한 크기의 마이크로캡슐에 담아 벽지나 페인트 접착제에 섞는 재료를 만들고 있는데 전자제시험연구원에서 피톤치드 캡슐을 벽지에 넣어 실험한 결과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실내의 포름알데히드의 97%가 제거되었다고 전했다.

㈜지프렌드의 흙벽돌은 특이하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회색 시멘트 벽돌이나 붉은색 소성 벽돌은 섭씨 600~1200도의 가마 안에서 굽지만 이 흙벽돌은 무기물질을 흙에 섞은 후 찍어 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늘에서 말리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도 거의 없다. 석회 등 무공해 무기물질이 흙과 반응해 스스로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1998년 고령토 물질 및 제조방법으로 특허를 따낸 이래 7개의 관련 특허를 갖고 있고 중소기업청, 국제산업인증원, 과학기술부의 기술인증을 받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산책로 광장 바닥은 이 벽돌로 만들어졌고 건축 중인 고양국제전시장의 벽에도 이 벽돌이 들어간다.

이 회사 김랑운 부사장은 '시멘트 벽돌과 달리 흙 벽돌은 스스로 습도를 조절하고 열을 흡수하는 등 자연 상태의 흙이 가진 기능을 고스란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상품 구입, 이제 '바이인벤션'으로!



'특허기술상품 e-마켓 플레이스 개설식'에 참가한 내빈들과 일반인들이 '바이인벤션' 시연회를 갖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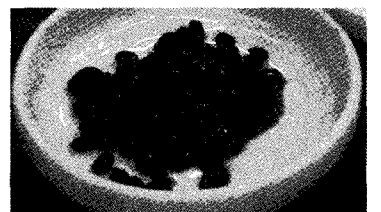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특허기술상품 e-마켓 플레이스(바이인벤션/http://www.buyinvention.com) 개설식'을 가졌다.

특허청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바이인벤션 입점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설회에서 민경탁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은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도 생활 속에서 발명품을 쉽게 접근하고, 우수 발명품들이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e-마켓을 개발하게 됐다'며 '바이인벤션닷컴을 통해 특허기술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이인벤션'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이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특허기술상품을 거래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특허상품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아 두세요!

알고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검정콩'



검정콩은 단백질 함량이 41.3%로 식물성 단백질 중 가장 우수하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는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칼륨 등이 풍부하여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시켜준다.

빈혈 예방에 좋은 비타민 B, 엽산, 베타카로틴, 철분도 많아 저혈압 환자에게 좋으며, 콜레스테롤을 없애고 항산화 작용이 있는 사포닌은 불포화 지방산과 함께 혈관을 깨끗하게 하여 혈관의 노화뿐 아니라 암도 예방한다.

검정콩에는 비피더스균이 장내에 증식하는데 필요한 당류가 많고, 검정콩의 칼륨은 수분대사를 원활히 해준다. 따라서 검정콩은 반찬, 간식 등으로 권장할만한 식품이다. 단, 열량에 주의하여 검정콩을 섭취해도 어느 정도 열량섭취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 그러나 콩의 열량은 높은 단백질 함량에 기인한 것임을 알고 다이어트에 피해야 하는 식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식품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자.